

‘오징어게임’ 파이널리스트의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도멘 드 라 로마네 콩티

“5개의 게임을 모두 무사히 끝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징어게임’ 파이널리스트인 기훈과 상우, 새벽이 운동복이 아닌 연미복까지 입고 마주한 선물은 근사한 만찬이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식사는 형편없어지면서 감자 한 알로 버텼던 그들에게 갖구운 빵과 스테이크가 차려졌다.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날테니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인 셈이다.

오징어게임은 거액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경주마가 됐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한 장면.

/넷플릭스

현실도, 게임도 그저 지옥일 뿐인 경주마에게 호스트는 은혜를 베풀듯 와인까지 내어준다. 바로 지구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는 ‘도멘 드 라 로마네 콩티(Domaine de la Romanee Conti)’다. 오징어게임 감독은 인터뷰에서 빈티지까지 신경썼다고 하는데 456번 기훈과 함께 비취진 장면에서는 로마네콩티라는 것 외에 빈티지는 알아보기 힘들다.

로마네 콩티의 평균 가격은 2만1953달러. 한화 약 2600만원이다. 누구나 알지만 마셔본 이는 거의 없는 와인이라는 말도 그

래서 나왔다. 기자 역시 마셔보지 못했고, 아마 앞으로도 마셔볼 기회는 없을 것이다.

로마네 콩티는 프랑스 부르그뉴의 심장 코트 도르에서도 최상급 레드 와인의 생산지 코트 드 뉘에 위치해 있다. 코트 도르는 ‘황금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가을철이면 언덕이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기도 하지만 이 지역 와인이 와인 메이커들에게 가져다주는 수입에 빗대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본 로마네는 물론 플라제 에세조, 주브레 샹베르탱, 모레 생 드니 마들이 모두 모여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로버트파커는 로마네콩티에 대해 “이보다 훌륭한 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극찬했다. 피노누아 품종 특유의 투명한 루비컬러에 풍부한 향, 실크와 같이 우아하면서도 힘이 넘친다고 한다.

맛도 맛있지만 로마네 콩티의 가격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희소성이다.

로마네 콩티는 프랑스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곳 중 하나다. 면적이 1.63에이커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량은 평균 450상자, 대략 6000병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그냥 살 수가 없다. 단독이 아닌 라 타쉬와 리쉬부르, 로마네 생 비방, 그랑 에세조 등과 합쳐 12병 한 세트 단위로 판다고 하니 실제 로마네콩티 한 병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상 이상이다.

벼랑끝 경주를 달리고 있는 말에게 로마네 콩티가 수천 만원짜리인들 무슨 소용. 경주마 456번, 218번 067번은 로마네 콩티 따위엔 관심도 없이 스테이크를 썰어 그간 허기진 배속을 채우기 바쁘다. 차라리 오징어 게임의 호스트 일남 영감님이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 앉아 스프를 뿌린 생라면에 한 번에 들이킨 소주가 더 달았을 수도.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작가로 변신하는 비법 알려줘요”

친구의 시누이는 카페 사장님이다. 그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나자 영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하고 배달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하루는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한다. ‘무화과 스콘이랑 카페라떼 위에 올라가는 크림 만드는 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다른 요리 유튜브 채널 보고 따라 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라고. 이 카페 주인장은 지난 8년간 수백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개발해 낸 황금레시피를 손님에게 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소설가의 일

김연수 지음/문학동네

나오는 이야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 + 그에게 없는 것 / 세상의 갖은 방해 = 사고생’.

저자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할 때마다 이야기는 발생한다. 더 많은 걸, 더 대단한 걸 원하면 더 엄청난 방해물을 만날 것이고, 사고생하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원하고 또 원하는 세계를 꿈꾼다. 인간은 누구나 최대한의 자신을 꿈꿔야만 한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건 주인공(=나)이 얼마나 대단한 걸 원했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얼마만큼 생생하게 느꼈으며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이다. 읽는 사람(독자)이 쓰는 사람(작가)이 되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책.

264쪽, 1만3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미디어 알고리즘의 욕망

마크 안드레예비치 지음/이희은 옮김/컬처북

유튜브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 목록에 이름을 올린 콘텐츠에는 “알고리즘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는 댓글이 빠지지 않고 달린다.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포털이나 SNS는 사람들의 취향 파악을 마친 것처럼 이용자의 흥미를 끝마친 뉴스나 오락물을 제공하고, 검색 엔진과 온라인 쇼핑몰은 나의 욕망과 필요를 미리 알기라도 하듯 사야 할 상품 목록을 보여 준다.

저자는 모든 자동화는 철저하게 인간과 기계와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며 그래서 더욱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말한다.

자동화된 미디어가 강조하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편리는 온 세계에 대한 포괄적 감시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저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된 미디어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안을 선별하고 인과 관계를 분석하며 서로 숙의하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사회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64쪽, 2만4000원.

휘슬블로어

수전 파울러 지음/김승진 옮김/샘앤파커스

책은 내부고발자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면서도 우버에서의 일들을 용기 있게 밝혀 세상을 변화시킨 수전 파울러의 삶을 다룬다.

그는 차를 이용해도 가까운 상점까지 30분이 걸리는 애리조나주 강촌에서 정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독학으로 아이비리그에 들어가 모두가 선망하는 실리콘밸리에 입성했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에게 돌아온 건 ‘백인 쓰레기’라는 낙인이었다. 직장에서는 성차별과 인종 차별, 가스라이팅은 물론이고 노동법과 기본적 인권도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 ‘우버의 민낯’을 목격하게 된다. 저자는 삶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다. ‘어떤 일이 닥친 여성’이 아닌 ‘어떤 일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한 인간의 투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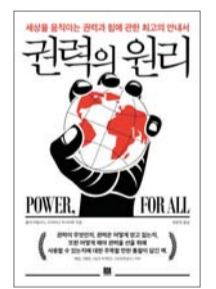
308쪽, 1만7000원.

권력의 원리

줄리 바릴라나, 티치아나 카시아로 지음/최윤영 옮김/로크미디어

권력의 힘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대인관계에서부터 직장에서의 논쟁, 국제 외교, 기업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늘 마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과 권력은 금수저나 특권층의 소유물이며, 이 더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에도 흠을 묻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지난 20년간 권력과 힘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저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통념이 틀렸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힘은 선악을 구분할 대상이 아닌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선한 손에 있을 땐 선한 힘이, 악한 손에 있을 땐 악한 힘이 발휘된다. 힘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직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한곳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권력도 분산시킬 수 있다. 힘은 더러울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388쪽, 1만88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인플레이션 확산...내년 1분기까지 지속 전망
▲백악관 “천연가스·연료 부족 해결방안 논의 중” /사진 뉴시스

▲미중 관계 완화 조짐...정상회담 앞두고 워킹그룹 가동
▲러시아 “WHO 스푸트니크V 승인 머지않아”



▲남미-카리브해지역, 기후위기로 농업피해 최악
▲日 중의원 해산... 이달 31일 총선 실시 /사진 뉴시스